

한국문화 중심지로 집중 육성



9월 2일 개원회를 갖는 중국 청파오 장안사 전경.

신라인들의 중국교역 중심지였던 신라방(新羅坊)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국사찰이 중국 청파오(靑

로 1호 석노인관광원 내에 개원하는 장안사(長安寺)가 그 곳. 중국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2003년 5월 18일 건립본사의 첫 삽을 뜬 지 1년3개월여 만의 성과다.

9월2일 청파오에 장안사 개원 식당 운영 통한 재정자립 계획 대지 1천평에 대응전 요사 갖춰

청파오 장안사는 부처님이 앉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 명명된 대불산(大佛山)을 배경으로 1천여평의 대지에 세워졌다. 40평 규모의 대웅전과 이화루(요사채), 80평 규모의 공양간과 대웅식당이 중국식 건축양식으로 세워져 도량으로서

의 면모를 갖췄다. 앞으로 장안사는 한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법회를 운영, 한국문화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된다. 또한 한국음식과 사찰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대웅식당을 운영해 재정자립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포교의 경험을 갖고 있는 황성 죽림산사 회주 리선행 법사가 사찰운영을 맡기로 했다. 장안사를 건립한 병진 스님(일산 장안사 주지)은 "8백만 명에 달하는 청파오 시민 중에는 10만여명의 한국인과 15만여명의 조선족 등이 포함돼 있고, 향후 4년 내 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코리아타운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성장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한국불교를 알리는 중국 내 최고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전등사, 이규보 사진전

몽고침략이 계속되던 국난의 시기에 서사시 <동명왕편>을 지어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인 백운 이규보 선생의 발자취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계성·지용택)가 8월부터 9월 30일까지 강화도 전등사에서 개최하는 사진전 '백운 이규보의 삶과 발자취'가 바로 그것. 이규보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사진작가 최용백 씨의 작품 34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최 작가는 백운 선생이 생전 머뭇했던 곳과 후인들이 선생의 학역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유적지, 선생의 연구서적 등을 카메라 앵글 속에 담았다.

백운 이규보 선생은 <동명왕편>과 <동국이상국집> 등의 문학작품으로 고려문화의 깊이와 폭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유교·불교·도교 등 여러 사상들을 섭렵했던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사상가이다. (032)937-0125

김은경 기자

'리빙 피스' 출판기념회

무안 약사사 조실 경훈 스님의 영문 선시집 <리빙 피스(LIVING PEACE)> 출판기념 법회가 8월 11일 약사사에서 봉행했다.

약사사 뜰에서 저녁 만찬과 함께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불교교단 연구소장 원두 스님, 무안불교연합회장 정명 스님 등 지역사찰 스님과 서삼석 무안 군수, 서오근 무안 문화원장, 전환경 전남문인협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리빙 피스> 저자 경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작은 책이지만 미국에서 호평받고 있다고 하니 아직 한국불교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살아있는 평화, 깨어있는 행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리빙 피스>를 출판한 모리스 박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단독으로 되어있지 않고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며 "경훈 스님 선시집 출간을 계기로 한국불교사회와 미국사람들 사이의 길고도 풍요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관련인터뷰 14면

이날 약사사측은 선시집을 감수한 해당 스님과 번역을 맡은 이주경 박사, 선시집을 출판한 미국 아리스 출판사 로즈메리 모리스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삶에서는...

의정부 회룡사

상생의 정신 이루는 사찰



8월 7일 회룡사에서 열린 '2004 어린이 생태학교'.

범종각 석조(石槽) 앞 마당에서 30여명의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환경문제를 퀴즈로 풀고 있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계를 묻는 질문에 경광하듯 "저요, 저요!"를 신나게 외친다. 8월 7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회룡사가 함께 개최한 '2004 어린이 생태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은 회룡계곡 탐사, 나무열매줍기 등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지난 몇 년간 회룡사가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로 한바탕 흥역을 치르면서 한국불교 환경운동의 '상징적 도량'이 된 후 주지 성견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은 세

올해 처음으로 초파일 행사를 주관하고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로 치렀다. 30년 이상 회룡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노보살들의 모임인 연심회를 시작으로 막내들이 유치원생들까지 한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했다.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지 않았어도 음악회는 지역주민들과 신도들의 환호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성견 스님은 "회룡사 신도들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만족해했다. 최근에는 거사회와 산악회가 매달 정기 산행으로 불심을 다지고 있다.

성견 스님은 늘 신도회 자량을 할 때면 지난 98년 설화당 건립 불사 당시의 일화를 언급한다. 그해 여름 폭우로 마을에서 올라오는 진인로가 불어난 계곡물에 모두 휩쓸려 떠나려갔다. 하지만 신도들이 하나 둘 모여 들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사자재와 인부들이 먹을 라면이며 먹을 것들을 일일이 지게로 쳐다 날랐다. 불사가 끝나자 모두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신도회·지역민 단합이 회룡사 저력

성견 스님은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에 매달리면서 의정부 지역포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회룡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포교중심 사찰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환경 파괴를 당연시하던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도조직을 지금보다 보다 더 체계화 하고, 좀더 사부대중이 긴밀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성견 스님은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계곡의 수량조사 등 터널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환경피해 전방을 감시하기 위해 환경단체들과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도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031)873-3391 조용수 기자

나눔, 이웃에 확산 시키자



8월 7일 열린 생명살림불사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생명살림 불사를 서원하고 있다.

인드라마 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8월 7일 남원 실상사에서 '생명살림불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생명살림 추진위원회와 생명살림 선우가족 등 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발족식에서

정덕, 원형 스님과 백낙석 법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생명살림불사 추진위는 앞으로 △생명살림도량 기금조성 △친환경쌀 '공양미' 율리기 운동 전개 △도·농간 사찰결연 등 생명살리기 불사를 전개한다.

공동추진위원 장정덕 스님 '공양미' 율리기 등 운동 전개는 생명불사회장은 "공간마련과 기금형성, 인재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원장 원형 스님도 "생명살림불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며,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뜻과 힘을 모아 조금씩 이웃으로 확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인드라마 생명공동체는 생명불사 추진위 발족에 앞서 '생태농업 4계절체험 여름가족캠프'를 8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상사 생명문화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여름캠프에서는 황토염색, 춤명상, 친환경농사체험 등의 체험학습과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등이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내 안의 평화를 찾아서...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들이 8월 10일 보성 대원사에서 현장을 찾아 '내 안의 평화'를 찾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이날 대원사를 찾은 청소년들은 구(舊) 동·서독과 남·북한 청소년 30여명으로,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 센터가 마련한 '미지 한독청소년 교류 프로젝트 동서남북'에 참가중이다.

장스님은 인사말에서 "더불어 사는 불교 정신을 되새겨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양국 청소년들은 11일까지 대원

사에 머물며 현장 스님의 지도로 불교예절과 대종타종, 다도, 선체조 등을 체험했다.

이번 프로젝트 총괄 진행을 맡은 이영욱씨는 "이념과 분단의 희생자인 양국 청소년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하기위해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며 장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원사측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6일부터 15일까지 구동·서독과 남·북한의 4개 지역 청소년들이 만나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통일 후 청소년들의 화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구(舊) 동·서독, 남·북한 청소년들이 보성 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www.chgg.co.kr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 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지장대불기도 도량 양주 대원정사

백중 설판공양 영가천도기도

백중 8월 30일(음 7월 15일)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나로 인한 선량조상이나 부모님을 위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사업 원만 발전, 가족들의 안녕 및 임시 자녀를 위한 백중 49일 기도 입재를 7월 13일(음 5월 26일)에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두루 동참하시어 나로 인해 비롯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자녀들의 입시기도를 비롯한 학업성취 등 저마다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동 참 비 : 영가 1위 30만원(백중 49일 기도기간 중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영가시식봉행)
- ▷백중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1시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 2재 : 7월 26일(음 6월10일) 3재 : 8월 2일(음 6월17일)
- 4재 : 8월 9일(음 6월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 ▷백중(108참회기도)회향 : 8월 30일(음 7월15일) 오전 11시

■ 토요일 철야정진 기도 -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4시까지

■ 판소리/장구 회원 모집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참가비 1개월 : 1만원 (학생·일반인, 가족회원 환영)

오시는 길 1. 셔틀버스 - 오전 10시 10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문산 방향 환승주차장) 출발 - 오전 10시 30분 장흥 농협 앞 출발 2. 자가용 : 서울 구파발 → 장흥 → 돌고개 앵무봉 관광지 → 대원정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지장대불조성 만등불사 접수중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전화 031)855-5501, 3 / 팩스 031)855-5502